

News

은행, 가계대출 700조 시대...추가 규제 앞두고 수요 몰렸다

아시아경제

5대 시중은행 취급 가계대출 잔액 702조 8,877억원으로 집계... 전월 대비 4조 728억원 증가한 규모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넘어섰으나, 이달부터 증가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 전망... 연쇄적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만큼 연말로 갈수록 대출은 더 막힐 것 예상

대출규제에 날개 꺾인 인터넷은행

한국경제

금융당국, 5일 영업을 시작하는 토스뱅크에 가계대출 총액을 연말까지 5,000억원으로 제한하라고 권고

이에 토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당초 계획했던 연 2억 7,000만원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 중단 예정

돈 쌓이는 은행, 요구불예금 한달새 10조 증가

디지털타임스

5대 은행의 지난달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754조 420억원으로 8월말보다 9조 8,908억원 증가... 9월 들어 요구불예금 4배가량 급증

요구불예금은 금리 0% 수준에 불과하나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 자금으로 분류... 유동성 리스크가 있으나 조달비용이 들지 않아 수익성개선에 막대한 영향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방안,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

인더뉴스

금융당국,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특히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등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금융위, 중징계 의결 해 넘길 듯...삼성생명만 웃는다

비즈니스위치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 논의...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

이달 사문기구인 법령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 넘겨... 제재 근거에 대한 법리를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 존재 언급

KB손보, 보험업계 처음 헬스케어 자회사 만든다

동아일보

KB손보, 보험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설립... 올해 5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첫 사례

기업간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 뒤 향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상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 언급

최저 증거금률 40%된 CFD... 증권사 "수수료 낮춰 고객 잡아라"

조선비즈

이달 1일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최저증거금률이 40%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한 수수료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

금융당국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적용하겠다 밝힌 것에 따른 조치

하나금융투자, 창원산단내 최대규모 지식산업센터 PF 주선

e대한경제

하나금융투자,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PF 주선 마무리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중소기업이 창원 뿐 아니라 김해 등 인근 지역에도 많아 분양 전망은 긍정적... 상가비율도 5% 수준으로 낮은 것도 안정적 임대 수익 가능 요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